

한국의 상하수도를 세계에 소개하다!

2007년 미국수도협회 컨퍼런스·전시회

전 세계 상수도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미국수도협회 컨퍼런스·전시회(ACE)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특히 우리협회는 지난 6월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Korean Water Issues' 컨퍼런스를 진행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협회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돌아왔다. 각국의 수도산업 현주소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현장을 소개한다.

전 세계 상수도인의 축제, 미국수도협회 컨퍼런스·전시회

1881년 3월 발족한 미국수도협회(AWW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수도사업 관련 전문가 단체로 손꼽힌다. 국제적인 비영리 조직으로서 교육사업, 기술사업, 학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음용수의 질 향상과 원활한 공급을 추구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수도협회가 매년 개최해 온 컨퍼런스·전시회가 100주년을 기록하는 뜻 깊은 해라고 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The World's Water Event'란 주제로 열렸다. 100주년 기념식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행사라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갖는 듯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국가의 상수도 기업, 정부 및 연구기관 등 600여 개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전 세계 상수도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Korean Water Issues’ 발표해 한국의 위상 제고

이번 행사에서는 17개 주제로 구성된 컨퍼런스가 함께 열리기도 했다. 그중 하나로 ‘Korean Water Issues(한국 물 이슈)’가 개최돼 국내 상수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는 2006년에 우리협회와 미국수도협회가 MOU를 체결하면서 이듬해 개최될 컨퍼런스의 인터내셔널 세션(Session) 4개 부분 중 1개 분야를 공동기획하기로 협의한 것이 실행된 결과이다.

Korean Water Issues 컨퍼런스는 단일주제로는 처음으로 한 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각국에서 모인 참관객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우리협회 정도영 부회장과 한국수자원공사 김수명 연구원이 각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한 뒤 주제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The Fluid-crossing gate for pipeline development and application」(한국수자원공사 안효원), 「Performance of membrane filtration systems (UF and MF) in drinking water treatment processes : Evaluation of resistance and energy efficiency」(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허현철), 「City of Seoul Waterworks tap water(Arisu) Quality Certification Program」(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허방련), 「Application of LC-OC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NOM remove in Han River」(한국수자원공사 김수명) 등 우리나라 수도에 관한 4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외국인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컨퍼런스를 마친 후에는 미국수도협회 측 International Advisory 의장이 정기적인 세션을 제안해 우리협회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교류 증진하자” 각국 대표들 토론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International Advisory Forum은 우리협회 정도영 부회장을 비롯해 세계물협회(IWA), 일본수도협회(JWWA), 호주수도협회(AWA) 등의 대표가 참석한 물관련 고위급 회의이다. 올해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제3세계 국가의 대표들도 참석해 더욱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안건으로 미국수도협회와 다른 유관기관의 협력 및 교류 증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각자 기관에 대한 소개와 전략사고에 관해 토론하는 등 알찬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Forum을 단순한 토론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온라인을 통한 Webinar(Web Seminar)를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으로 격상시킬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